군산 동국사 문화재 해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불교계 반발

장세환 의원(전주 완산을)이 국회에 제출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군산 지역 문화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 의원은 최근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 침략전쟁, 민족문화 말살 및 경제적 수탈의 수단으로 이용된 동산·부동산은 지정·등록문화재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건축양식인 군산 동국사 대웅전(등록문화재 제64호)을 비롯한 전체 등록문화재 422건 가운데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문화재 48건(수탈 18건, 일본양식 30건)의 해제가 불가피 하게 된다.

장 의원은 최근 KBS라디오 '패트롤전북'에 출연해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근대문화유산의 문화재 지정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전통문화유산의 보존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일제건축물에 투자됨을 비판해 왔다"며 "다만 기존 지정·등록문화재 가운데 식민통치 수단으로 이용됐으나 역사·교육적으로 보존 및 활용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역사적 보존자료'로 다시 지정하게 하는 등 명칭을 변경하고자 새 항목을 추가한 것뿐이지 이미 문화재로 지정한 것에 대해 법적 지위나 국고지원 등 불이익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종걸 스님(군산 동국사 총무, 국제 포교사)은 "조선이 청나라에 항복한 사건을 청 태조의 크신 공덕이라고 칭송한 '삼전도비'도 사적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며 장 의원의 발의에 반발했다. 스님은 "부끄러운 역사라는 이유로 잔재를 없앨 것이 아니라 지키고 보전해서 다시는 이 땅위에 슬픈 역사의 반복을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번 법안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복웅 원장(군산문화원)도 "일제강점기 건축물이 모두 일본 건축물이라고 규정짓기는 어렵다"며 "군산은 전국 어느 도시보다 복합적인 근대문화유산이 많기 때문에 일방적인 생각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통일 염원 담은 돼지 북으로

호남6대본사협·우리겨레운동본부 1억 기금 마련

1998년 6월 16일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 500마리를 트럭에 싣고 판문점을 통과했다. 이후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해빙무드를 맞으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이 차례로 성사됐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한반도 내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엔 불자들의 통일 염원을 담은 복돼지가 북한에 전달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호남6대본사협의회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월 6일 통일복돼지 보내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호남6대본사협의회(대흥사 백양사 송광사 화엄사 금산사 선운사)와 (사)우리겨레하나되기광주전남운동본부(상임대표 현지, 이하 우리겨레운동본부)는 2월 6일 광주불교사암연합 불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까지 1억원 기금을 마련해 통일복돼지를 구입한 후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겨레의 미래에 복(福)이 될 통일복돼지 보내기 운동'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호남지역 교구본사가 하나가 돼 모돈 50두, 웅돈 10두, 2개월분 사료를 구입해 인천항을 통해 평양 사동구역 장천리에 제공될 예정이다.

통일복돼지 제공을 위해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는 2007년부터 북한에 양돈을 위한 '북녘 통일돼지농장'을 건설해 연간 500두를 사육할 수 있는 축사도 완공해둔 상태다.

우리겨레운동본부측은 "통일복돼지 전달의 원만한 회향을 위해 2월중 평양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4월까지 호남6대교구의 각 말사와 시민들이 참여한 모금운동을 전개한다. 4월말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를 통해 통일돼지농장에 전달을 마치고, 5월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라 밝혔다.

영조 스님(송광사 주지)은 기자회견문에서 "부처님 자비로 남북관계를 회복시킬 뜻 깊은 단초를 마련하고자 통일복돼지 보내기 사업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한민족이 어렵다면 사상과 이념을 넘어 작은 힘이나마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불자들의 마음속엔 남과 북을 가리지 않는 부처님의 자비가 있고, 호남에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의로운 마음으로 나라를 지켜온 정신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익산 사자암 가족법회장 이준호 거사

"불법 실천 못한면 한낱 지식일뿐…"

익산시 금마면 미륵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사자암. 최근 국보급 금제 사리구가 발견된 미륵사지가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사자암 돌계단에 걸터앉아 이준호 가족법회 회장을 찾았다.

2005년 사자암 일요가족법회 창립과 함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준호 거사(사진)는 어려서 어머니와 함께 오르던 사자암을 잊지 못한다.

"사자암에 오르면 백제불교의 영화를 간직하고 있는 미륵사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많은 불교문화재가 쏟아져 나온 왕궁리 유적이 손을 내밀면 닿을 듯 바로 눈앞에 펼쳐지기도 하지요. 제 신행의 원동력은 사자암에서 펼쳐지는 전경입니다."

이 거사는 옛 백제불교의 영화가 되살아나기를 고대하는 희망으로 청소년기를 보냈다.

이준호 거사는 군 제대와 함께 해양경찰에 근무했다. 업무 특성상 격일제로 근무하거나 순시선이라도 타고 바다에 나가게 되면 5일에나 한번 육지에 발을 디딜 환경에서도 군산불교청년회 활동에 빠짐없이 동참해 지역불교계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1998년 포교사고시에 합격한 뒤 이 거사의 불교에 대한 열정은 적극적인 포교활동으로 이어졌다. 그런 그를 두고 해양경찰 동료들은 '움직이는 법당'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나름대로 정리된 불교문서를 나눠주고 전경들에게 불교 교리를 바탕으로 정신교육을 진행하다보니 동료들이 그렇게 불러주더군요."

이준호 거사의 포교열정은 사자암 가족법회로 이어졌다. 미륵산 중턱에 있는 사자암은 40분정도 산을 올라야하는 수고로움 때문에 가족법회에 동참하는 가족들이 많지 않았다. 이준호 거사는 불자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보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족법회에 적극 동참을 권유하자 법회 동참자들이 차츰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제는 사자암 가족법회에는 매주 100여 가족이 동참하고 있다. 이 거사는 지금도 법회에 맞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전화로 동참을 독려한다. 회원 중에는 이준호 거사의 정성에 탄복해 법회에 나온다는 가족이 있을 정도다.

이 거사는 근무가 없는 비번날이면 암자 뒤편의 작은 텃밭에 채소를 가꾸고 사자암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미륵산을 찾는 등산객들을 상대로 포교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수행의 힘이 있어야 포교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시민선방에도 빠짐없이 동참 중이다.

이준호 거사의 신행활동에는 수행과 포교에 이어 봉사활동도 빠지지 않는다.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고 교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한낱 지식에 불과합니다. 실천하기 위해 틈틈이 사찰이나 요양시설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쑥뜸봉사를 실천하고 있어요."

이 거사는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근무지 이동이 잦지만 항상 인근 사찰을 찾아 궂은 일을 해결하고 법회 때는 쑥뜸 봉사를 실천해왔다.

이준호 거사는 "사자암에 오를 때면 발밑으로 펼쳐진 미륵사지, 백제 왕궁 유적이 복원돼 익산지역 불교가 과거의 영화를 되찾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미륵사지 출토 유물 선보여

19일까지 전북도 의회 로비서 사진전

백제금동대향로에 이어 백제 불교예술의 백미를 보여준 익산 미륵사지 석탑 출토 사리장엄구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사진전이 개최됐다.

전라북도는 2월 10~19일 전라북도 의회 1층 현관로비에서 국보 제11호 '익산미륵사지 석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 등의 사진전을 열고 있다.

도내 국보급 유물과 관련한 범도민적 관심과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전시회는 금제사리호 등 유물 출토현황 및 사리장엄 수습과정, 수습유물 목록과 함께 유물별로 설명을 곁들여 전시 중이다. 또 익산유물전시관에서도 사리장엄 사진전시관을 별도로 마련해 전시하고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번 전시가 끝나면 도 본청 1층 현관 로비 및 기획전시실로 옮겨 계속해서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미륵사지 유물전시관 윤여영 주무관은 "최근 미륵사지에서 사리장엄 등 국보급 유물 500여 점이 발굴된 익산에 대한 관심이 전국 각지로부터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부산지역 등의 여행사와 기관들의 방문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6~9일에는 서울 용산역에서는 'KTX와 함께 하는 주옥같은 익산관광 사진전시회'가 열린다. 전시회에는 익산미륵사지 사리장엄, 왕궁리오층석탑 등 문화재를 비롯해 보석박물관, 국화축제 등 익산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30여 점의 사진이 해설과 함께 전시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윷놀이 잔치

무각사 대보름 행사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는 2월 9일(음 1. 15) 정월 보름을 맞아 지역 노인 500여 명을 초청해 오곡밥을 대접하고 윷놀이 잔치를 벌였다.

오곡밥 식사후 마을별 30여개 팀이 참가해 토너먼트로 진행된 윷놀이 잔치에는 등수에 따라 경로당회식비 30만원과 쌀 100㎏을 비롯해 다양한 상금과 상품이 전달됐다.

청학 스님은 인사말에서 "옛부터 정월은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민족의 명절이었다. 오늘은 행복한 마음으로 어른들께서 즐기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오달면 할아버지(75·서구 치평동 노인연합회장)는 "이 지역 어른들이 많이 참가하셨다. 좋은 자리를 마련해준 사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생명나눔 광주전남

2009 정기총회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 이하 광주생명나눔)는 2월 12일 신양파크호텔에서 2009년도 정기총회를 통해 지난해 사업 및 결산보고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신임 이사로 무등 스님(천룡사 주지)과 박종석씨를, 감사에 보혜 스님(비전사 주지)을 각각 선임했다. 또한 광주생명나눔 후원회 후원기금 전달식과 서현창 환우에 대한 치료비 전달식도 진행됐다.

2008년도 사업결산에서 광주생명나눔은 조혈모세포(골수) 기증 460명을 모집하고 영호남헌혈은행 운동을 통해 헌혈증서 5337매를 모집하여 1694매를 환우에게 지원했다.

한편 광주생명나눔을 퇴사하는 윤예중 사무국장에 대한 공로패 증정도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원각사 청년회

회장단 이·취임

광주도심의 포교도량 원각사청년회(회장 범정택)는 2월 7일 대웅전에서 제33·34대 회장단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도제 스님(원각사 주지)은 격려사에서 "청년회에 맞는 불교신행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것이 가장 큰 포교수단이다"라며, "단체뿐아니라 회원 개인들이 마음공부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제34대 회장으로 취임한 범정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불교의 희망은 청년불자'라는 좌표를 지렛대로 삼아, 굳건한 신앙심과 실천력으로 정토세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원각사 청년회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정기법회와 매주 목요일 신입회원 연수교육을 진행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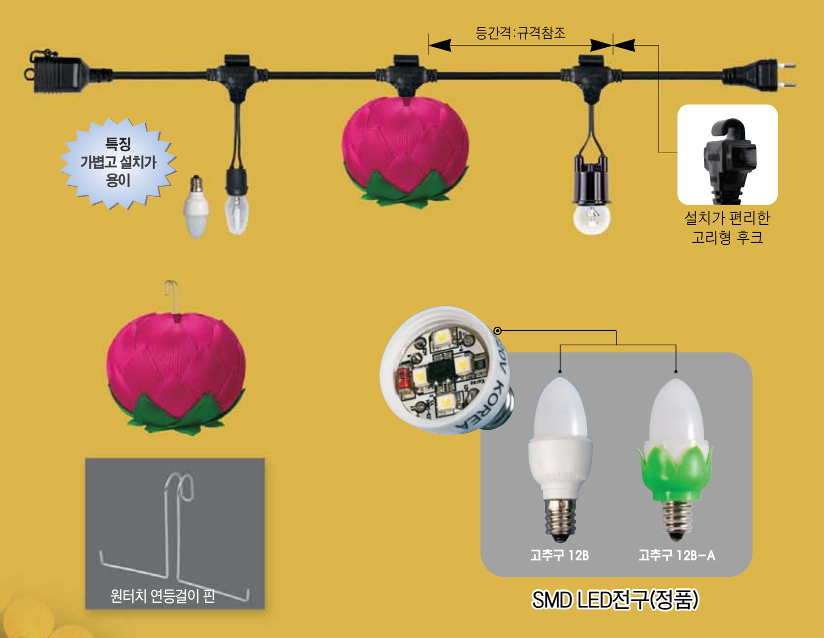
조계종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최소 비용으로 천도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극락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섭수하시는 부처님의 교화도량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최소의 비용(관욕비)로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소원성취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 불교식 임종, 입관, 발인, 하관
□ 49재, 백일재 기도, 영가 천도재, 기제사 외
□ 수능기도, 생일기도, 안택기도 접수 봉행 중
□ 중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상담 (매주 금. 토 오전 10시-3시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의정부 예술의 전당 맞은편 동양빌딩 6.7층)
전화 : 031)836-0477 / 010-4111-7523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全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